

한국영화에 나타나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 인식

홍경영¹, 임숙빈^{2*}

¹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²을지대학교 간호대학

Social perception of schizophrenic patient as portrayed in Korean films

Kyung-Young Hong¹, Sookbin Im^{2*}

¹Dept.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Eulji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대중 인식이 투영되는 매체라 할 수 있는 영화에서 묘사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지난 40년간 상영된 영화 중 조현병 환자가 등장하는 48편의 영상자료와 시나리오를 귀납적 내용분석 방법으로 대인지각, 감정지각, 가족 및 친지의 인식, 그리고 치료대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95년 이전 영화에서는 조현병 환자를 매우 폭력적이고 위험하며, 가족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1996년 이후 영화에서는 조현병으로 인한 구체적 경험이나 내면적 묘사가 증가하고 치료와 관련된 가족이나 환자의 태도도 보다 적극적으로 묘사되었다. 결론적으로 영화를 통해 본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부담과 고통을 주는, 피하고 싶은 존재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중 인식에 영향력이 높은 영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인식 변화에 영상매체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시도해볼 수 있겠다.

주제어 : 정신장애인, 조현병, 환자, 영화, 사회 인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social perception of schizophrenic patients through films expressed in schizophrenic patients. We analyzed 48 films and scenarios that have been screened for the last 40 years by content analysis method to perceive interpersonal and emotional perception, perception of families and treatment measures. Patients were violent, dangerous, and burdensome to the family. However, specific experience or internal description has increased, and attitude of family or patients related to treatment has been more actively described since 1996. In conclusion, the perception of patients seen negative, want to avoid, giving burdens and pain to others. Therefore, to improve the social perception of mental disorders, it is necessary to make active use of films that have a high impact on public perception, and try to study the influence of visual media on perception change.

Key Words : Mentally Ill Persons, Schizophrenia, Patient, Films, Social Percep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정신장애의 조기

발견과 치료 및 재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1]. Hahn과 Rhee[2]는 사람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인권 존중은 인정하지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이해관계가 얽히는

*Corresponding Author : Sookbin Im(imsb@eulji.ac.kr)

Received October 19, 2017

Accepted April 20, 2018

Revised March 27, 2018

Published April 28, 2018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검찰청 보고[3]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정신장애인을 폭력적이고 위험한 사람이며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대[4].

이런 편견은 특히 주거, 교육, 직업 등과 같은 생활 전반의 차별로 이어져 편견으로 피해를 입는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극심한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되게 한다[5]. 그 중 조현병은 주요 정신장애로, 환자는 인지기능의 장애, 자아기능의 약화, 사회적 지지망 부족 등을 겪으면서 정신사회적 손상을 매우 크게 입게 된다[6].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효과적인 사회재활을 위해서는 본인, 가족, 주변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이들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이 중요하다[7,8]. 그리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전문적인 치료 뿐 아니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9].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1995년을 기점으로 정신보건사업이 추진되면서 정신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10-12]. 제 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도 정신건강사업의 추진방향 중 하나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와 우호적 환경 조성」을 선정하고 인식개선과 기반 확충을 중점사업으로 계속해가고 있다[13,14]. 2017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공익광고 제작방영과 매체 모니터링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가족 및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해오고 있다[14].

하지만 최근 이루어진 국내 조사에서도 사람들은 정신장애인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여전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웃으로는 꺼리는 이중적인 인식과 태도를 보였다[15]. 이러한 편견에 매우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중매체로서[16-18], 특정 집단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일반인의 사고뿐만 아니라 관련 공공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대중매체를 통해 재현되는 정신장애인들의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이며 예측이 불가능하고 위험한 존재임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스스로가 처한 상황이나 행동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힘이 부족하며 나약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16-18].

최근 들어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로서 영화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19], 이는 영화가 대중의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

술로서 시대에 따라 현실을 비추어 왔기 때문이다. 영화 속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대중의 보편적 정서의 틀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영화는 그 시대 사회 대중의 보편적 가치 인식을 보여주게 된다[20].

영화가 현실을 반영할 때는 단순 모사나 복제 뿐 아니라 사회의 모순과 현실의 본질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그려내게 되면서 관객이 실제 현실을 지각하게 돕고 영상으로 생동하는 대상을 미리 경험시켜 강력한 투사의 힘을 내포한다[19].

또한 각기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에 똑같은 내용의 영화를 볼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기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21]. 즉 영화에서 정신장애인이 등장하는 장면이나 내용을 다수가 동일하게 보는 것은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고 유지·강화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쳐 사회 인식을 주도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내용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한 현상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으며 매체의 메시지가 실제로 수용자들의 인식이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실증적 연구는 다소 미흡하다.[22]

이에 정신질환 중에서도 만성적 경과를 거치는 대표적인 질병인 조현병에 대해 영화에서는 어떤 인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시기를 나누어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계속해왔고, 정신건강 관리 방향도 수용 위주에서 재활과 사회복귀 중심이 되는[23]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1995년을 기준으로 40년간 영화에 투영된 조현병에 대한 사회 인식을 비교 파악하여 인식개선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영화 속에 나타나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 인식을 파악하여 인식개선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995년 이전 한국영화 속에 나타나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 1996년 이후 한국영화 속에 나타나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한국영화에 나타나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 인식의 내용을 파악하려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영화진흥위원회에 공식 등록된 영화로 조현병 환자를 소재로 하고 1975년부터 2014년까지 상영된 영화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5월 초부터 2016년 5월 초까지로 영화포털사이트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에서 ‘정신장애, 정신질환, 정신이상, 정신분열, 정신병, 정신병원, 정신분열병, schizophrenia, 조현병’이라는 단어를 넣어 검색한 80편의 영화중에서 조현병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21편과 영상을 구할 수 없었던 11편을 제외하고 총 48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 도구

조현병 환자를 표현하는 대사나 행동, 감정 등의 묘사에 나타나는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Gong[1]의 정신장애인에 관한 표상반응 분류기준을 기초로 하였다. 그리고 조현병 환자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영화 ‘지구를 지켜라’와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를 대상으로 시험코딩(pilot coding)을 수행하면서 분류 기준을 수정보완하고 영화내용분석기록지를 구성하였다.

영화내용분석기록지에는 장르, 개봉일시 등 일반적인 정보와 조현병 환자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도록 구성하였다. 내용 분석의 틀은 사람들이 조현병 환자와 상호작용하거나 관계하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는지를 표현하는 대인 지각(유형, 성향, 행위 등), 조현병 환자에 대한 감정 지각(긍정적 부정적 정서), 조현병 환자 가족이나 친지의 인식, 그리고 조현병의 치료대책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였다.

2.4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자료 수집은 2014년 5월 초부터 2016년 5월 초까지 이루어졌다. 국내 대표적인 영화포털사이트 영화진흥위원회(<http://www.kofic.or.kr/>)와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http://www.kmdb.or.kr/>)에서 ‘정신장애, 정신질환, 정

신이상, 정신분열, 정신병, 정신병원, 정신분열병, schizophrenia, 조현병’을 단어로 검색하였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 VOD, DVD, VHS로 영화를 각 2회 이상 시청하였고, 되감기 기능을 이용하여 필요한 장면을 수차례 반복하여 보았다. 그리고 시나리오는 한국영상자료원을 방문하여 열람함으로써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영화내용분석기록지에 영화의 장르, 개봉일시, 관람등급, 시간, 제작/배급, 감독, 인물 설정, 줄거리와 함께 조현병 환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대사, 분위기, 구체적인 행위와 상황, 장면 횟수 등을 3차에 걸쳐 작성하였다.

영화의 내용분석 기록은 1, 2차에 걸쳐 시나리오를 확인하면서 해당 장면을 비교하고 종합하였다. 작성내용이 시나리오와 다른 경우에는 재시청하면서 영화와 상이한 부분이 없는지 재확인하였고 시청한 영화의 대사를 따랐다.

연구자 1인이 영화를 2회 이상 반복 시청하고 리모컨의 되감기 기능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애매하거나 세밀한 장면은 교수 1인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메모하여 자료 분석 시 활용하였으며 당일 문서화함으로써 자료의 누락을 막고 해석의 신뢰도를 높여 하였다. 장면의 구성요소가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기술된 시나리오를 객관적인 자료로 삼아 논문을 쓰는 전 과정동안 내용 분석 방법을 사용해 여러 편의 연구를 발표한 정신간호학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반을 둔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4.1 영화 개봉 시기 분류 및 코드화

영화는 개봉시점과 제목을 토대로 199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었다. 그리고 Movie의 ‘M’과 연도를 붙여 코드화하였고 동일 연도는 숫자로 구분하였다.

2.4.2 영화 내용 분석

영화 내용에 대한 분석은 Satu Elo와 Helvi Kyngäs[24]의 귀납적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첫째, 핵심내용 코딩은 영화 장면과 시나리오에서 영화내용분석기록지의 항목에 따라 추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핵심내용은 대사, 분위기, 구체적인 행위와 상황, 장면을 분석코드와 함께 정리하였다.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합하고 주제를 드러내는 표현과 직접적 대사, 시나리오에 나온 묘사로 선택하여 빈도와 함께 표시하였다. 빈도수는 행위를 시작해서 끝날 때

까지를 한 장면으로 수량화했고, 대사는 나올 때마다 횡수로 측정하였다. 문장에서 형용사나 동사로 나타난 단어를 명사화하고 해석 오류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상황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덧붙였다. 대사가 긴 경우에는 간결하게 요약 표현하였고, 문장의 시작과 끝, 그리고 문장을 삭제한 경우에는 ‘...’으로 처리하였다. 맞춤법이 틀리거나 사투리가 너무 심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글자를 수정하였다.

둘째, 5회에 걸쳐 핵심내용 코딩을 반복 확인하고 유사한 내용끼리 묶고 빈도수를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유사한 그룹으로 묶기 어려운 경우에는 코딩을 추가하였다. 이를 그룹별로 범주화하고 요약 정리하여 핵심범주를 확인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조현병 환자에 대한 대인지각

1995년 이전 영화에서 조현병 환자를 지칭하는 말로는 범죄자나 사회악이 가장 많았다. 패배자 혹은 미치광이라고도 표현되었다. 조용하고 가정적이며 깔끔하다는 긍정적 묘사도 있었으나 집착이 심하고 고집스럽다는 부정적 성향이 더 두드러졌다.

배회하고, 지저분하게 식사하며, 성생활이 문란하고, 썩지 않아 악취가 나는 사람으로 표현되었다. 이유 없이 울고 웃고 고함치르며, 대화하는데 반응이 없거나 횡설수설하며 지리멸렬하게 대화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한편 자신이 예수처럼 위대한 인물이라는 과대 사고도 보이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행패부리는 공격 행위도 보였다. 도둑질이나 가게에서 물건을 사지도 않고 행인들에게 쫓아버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발작하기도 하였다. 멍한 표정으로도 표현되었지만 주로 섬뜩한 인상으로 경계하고, 때로 이상한 몸치장과 옷차림을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었다.

1996년 이후 영화에서는 조현병 환자를 사이코라 지칭하는 게 가장 많았고, 범죄자, 패배자, 적이라고도 하였지만 위협하지는 않은 사람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망상에 따라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배회하고, 지저분하게 식사하며 이물질 섭취, 식사 거부, 비정상적인 수면 등의 행동을 보였다. 악취를 풍기고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 이유 없이 울고 웃고 고향지

르며, 대화할 때 반응이 없거나 횡설수설하고 지리멸렬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을 슈퍼맨 같은 영웅, 또는 나무나 사이보그라 주장하였다. 주위 사람들에게 행패부리고 물건을 부수며, 자해 행동 등의 공격성을 보이고, 갑자기 음식을 모두 버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손가락을 마구 움직이는 반복행동을 하며, 발작하기도 했다. 또한 깡마른 체격, 멍한 표정, 경계하는 섬뜩한 인상, 자해 상처, 이상한 몸치장과 옷차림의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아래 Table 1과 같다.

3.2 조현병 환자에 대한 감정지각

1995년 이전 영화에서 조현병 환자에 대한 감정 표현으로는 두려운 표정, 황당한 표정, 꼴 보기 싫다는 혐오적 표현을 하거나 비웃고 꺼리며, 쫓아버리려 하거나 피했다.

한편 조현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돌봐주거나 울기도 하고 걱정스레 곁에 있어주기도 하였다. 편안하게 대하고 환자 말에 동조하며 거들어주는 모습도 보였으며 가족이나 친지가 과거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장면도 있었다.

1996년 이후 영화에서도 조현병 환자를 대할 때 사람들은 혐오적인 표현이나 비웃음을 가장 많이 보였다. 두려운 표정으로 무서워하고 황당한 느낌을 드러냈다. 또한 환자를 꺼리고 쫓아버리거나 신고하고, 학대나 살해도 저지르는 등 혐오 이상의 공격성을 보이는 장면도 있었다.

반면 안타까워하며 울고 돌봐주거나, 염려하며 곁에 있어주려고도 하였다. 편안히 대하면서 말에 동조하거나 위로하는 모습도 있었다. 죄책감을 느끼고 용서를 구하는 가족이나 친지의 모습 또한 나타났다. 아래 Table 2와 같다.

3.3 조현병 환자에 대한 가족 및 친지의 인식

1995년 이전 영화에서 가족이나 친지는 환자를 끊임 없이 신경 쓰면서 이로 인해 병들거나 자살하기도 하였으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환탄하고, 환자의 위생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환자를 ‘짐’이라 칭하며 주변에 알리기를 부끄러워하고 차라리 없는 게 낫다며 책임져야 한다는 고민과 경제적 부담을 언급하였다.

또한 환자 몫까지 잘 살아야 한다는 기대를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회복을 바라고 기도하였다. 환자를 경제적

측면에서 이용하거나 때리기도 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1996년 이후 영화에서도 가족이나 친지는 환자를 끝

임없이 신경 쓰면서 포기하려 하고 그런 상황을 한탄하며 환자의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가족 갈등이 묘사되었고 가정의 해체를 겪기도 하였는데, 환자를 짐이

Table 1. Interpersonal Perception of Schizophrenic Patients

Classification		Category(Frequency)	
		Before 1995	After 1996
Type		Criminals/ Social evil(13) Loser(6) Lunatic(6)	Psycho/ Ghostly person(67) Criminal/ Enemy(28) Loser(3) Non-dangerous person(2)
	Positive	Domestic(5) Good/ Quiet/Tidy(3)	Scrupulous/ Planned/ Skillful/ Aggressive(9) Courtesy or goodness(3)
	Negative	Extreme commitment/ Stubbornness(4)	Extreme commitment/ Obsessive/ severe anger/ Blame for others(11)
Daily life		Roaming(7) Dirty eating behavior/ Odor(4) Inappropriate sex/ Sexual temptation(3)	Roaming/ Anywhere(over)Sleep/ Sleepless(12) Dirty eating behavior/ Odor/ Foreign body intake/ Refusal to eat(9) Inappropriate sex/ Sexual temptation(4)
	Emotion expression	Crying and laugh without reason (15) Yelling (9) No dust (8)	Crying and laugh without reason (27) Yelling(27) No dust(7)
	Language expression	Persecutory delusion, megalomania(22) Gibberish/ Incoherence/Neologism(11) No reaction(8) Hallucination(3)	Persecutory delusion, megalomania(97) Gibberish/Incoherence/ Neologism(55) Hallucination(15) No reaction(8)
Conduct	Aggression	Use violence(11)	Use violence/ Break stuff (89) Self-harm(14)
	Etc	Bizarre behavior/ Suddenly run out(17) Seizure(3) Thievery(2)	Bizarre behavior/ Suddenly run out(32) Repetition behavior/Seizure(11)
	Appearance	Blank expression(10) Gruesome/ Wary look(6) Scruffy grooming/dress(8) Unusual grooming/dress(4)	Gruesome/ Wary look(13) Blank expression(10) Scruffy grooming/ dress(18) Unusual grooming/ dress(14) Skinny build/ Self-inflicted wound(5)

Table 2. Emotional Perception of Schizophrenic Patients

Classification		Category(Frequency)	
		Before 1995	After 1996
Dislike/ Avoidance	Dislike	Disgusting expression/ Ridicule(19) Away(5)	Disgusting expression/ Ridicule(79) Physical abuse/ Murder(10) Away/ Report(9)
	Avoidance	Avoid or worry(5)	Avoid or worry(20)
Fearful/ Embarrassment	Fearful	Fearful facial expression and say(15)	Fearful facial expression/ Scary(41) Sense of threat(4)
	Embarrassment	Absurd expression/ Question(28)	Absurd expression/ Question(51) Sigh(7)
Sympathy/ Concern	Feel pity	Sad expression or look(30) Physical assistance/ Care(9) Crying(4)	Sad expression or look(35) Physical assistance/ Care(15) Crying(2)
	Concern	Worry/ Anxious expression(27) Keep somebody company(7)	Worry/ Anxious expression(34) Keep somebody company(7)
	Care	Agreement(3) Make people feel at ease(1)	Make people feel at ease(7) Agreement/ Consolation(6)
		Guilty feelings	Seeking forgiveness(4)

라 칭하고 주변에 알리기 부끄러워하며 경제적 부담을 언급하였다.

그러면서도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거나 환자의 생각을 바꾸려는 태도를 보이며 회복을 기대하고 기도하였다. 이외에도 환자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환자 대신 복수를 도모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환자 덕분에 장애 혜택을 받는 가족으로 묘사되기도 하였다. 아래 Table 3과 같다.

3.4 조현병의 치료대책에 대한 인식

1996년 이전 영화에서는 환자에게 가족의 사랑이나 주위의 관심이 질병 회복에 필요하다고 표현되었다. 그리고 입원하여 강제로 식사하도록 하는 장면이나, 사이코드라마, 투약이나 정밀검사, 휴식 등을 권하는 장면이 있고, 실제 자야를 찾으라고 조언하는 모습도 그려졌다.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은 마을회의를 한 후 입원을 권유하기도 하고 환자 자녀를 시설에 보내기도 하였다. 환자 도주를 신고하는 장면, 뉴스 보도, 굿을 하거나 방망이는 장면도 있었다.

1996년 이후 영화에서는 주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여 연애를 권하기도 하였다. 치료로는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등장하고 투약관리나 자발적 약 복용이 있었다. 병원 장면으로는 식사거부 환자에게 위관영양을 하거나 안정실에서 억제를 적용하고 전기경련요법, 사이코드라마, 활동요법등이 나타났다. 또한 실질적인 자신을 찾아야 한다며 조언하는 모습도 그려졌다.

2014년 영화부터 환자인권심의 장면이 등장하였고, 환자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퇴원 후 시설 입소나 사례 발굴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장면도 있었다. 지역사회에서는 환자 관련 소식을 알리거나 이장이 입원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시설에 입소하여 회복을 위해 명상과 요가를 하는 자발적인 모습을 그리기도 하였다. 아래 Table 4와 같다.

4. 논의

정신보건법 제정 이전이나 이후에 모두 조현병 환자는 사회에 해를 끼치고 희망이 없는 존재로 영화에 비추지고 있었다. 특히 폭력적이고 위협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많았는데 이는 선행 연구[21,25,26]와 유사하였다. 40년 이전보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폭력적 모습을 보이고

무차별적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그리고 있었는데 이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 국내 영화 전반에 폭력성이 심해지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27].

한편 조현병 환자의 성향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가정적이며 착하지만 고집이 심해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고 라는 과거의 이미지와는 달리 1996년 이후부터는 계획적이고 꼼꼼하며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기도 하여 조현병 환자에 대한 대인 지각이 다양해짐을 알 수 있었다.

영화 속에서 조현병 환자들은 감정표현이 적절하지 못해 이유 없이 울고 웃고 고함지르며, 무반응이거나 횡설수설하고 지리멸렬하며 망상과 환각을 드러내어 조현병 환자들의 주요 행동 특성 연구[26]들과 같았다. 특히 번덕스러운 감정 폭발 장면의 빈도가 잦았는데, 1996년 이후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더욱 증가하였다.

또한 망상과 환각의 경우, 단순히 환자의 말에 의존하던 묘사방법이나 극히 짧은 기억회상장면을 보여주는 것에서 벗어나 관객이 환자가 되어 증상을 겪는 것 같은 실감난 장면묘사가 이루어지면서 환자의 내면과 경험하는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이는 조현병 환자가 영화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졌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 특성에 대한 묘사는 자세해졌지만 그로 인한 고통이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성찰적 내용은 없었다.

조현병 환자를 향한 주위 사람들의 감정은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이 많았고 환자에게서 벗어나려는 태도와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호의적 표현이나 회피 행동 등은 1996년 이후 영화에 훨씬 많아졌으며, 힘들어도 함께 살려던 과거 모습에 비해 가족 해체의 위기감을 더 느끼게 했다. 또한 욕설과 비난하는 말을 하고, 원망하거나 때리고 밀치는 행동의 빈도가 확연히 높아졌는데 이는 최근의 다른 영화에서도 나타나는 공격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조현병 환자에 대해 싫어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인식을 드러내는 현재의 모습을 투영할 수 있고 앞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나 곁에

머무르며 돌봐주려는 행동 표현도 1996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였다. 따라서 개인주의가 더욱 만연해짐에 따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조현병 환자의 가족이나 친지의 인식은 1995년 이전이나 이후 여전히 회복을 기도하면서도 주변사람의 이목을 걱정하고 환자를 감추고 싶어 하며 죄책감이나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환자와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의 부담감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28,29].

그러면서도 치료대책으로 가족의 사랑이나 관심을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Demere와 Nikita[24]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실제로 가족이나 친지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바탕으로 질병과 더불어 살아가는 조현병 환자를 다룬 외국의 영화들을 참고로 하여 국내에서도 가족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한편 격려하고 지지하는 영화들이 만

들어짐으로써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 콘텐츠로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30,31].

가족이나 친지의 인식에서 달라진 것은 환자를 가족끼리 돌보려는 것보다는 입원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한 점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입원치료에 대한 묘사가 달라졌다. 1995년 이전의 영화에서 병원은 환자를 억누르거나 집단 활동 장면을 보이는 등 짧게 등장했지만, 1996년 이후에는 치료 장면을 상세히 보여주기도 하고 병원 자체를 무대로 삼은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전기경련요법, 위관삽입과 같이 다양한 치료 장면이 등장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강압적인 장면보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이나 개방병동,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의 장면 등을 보여줌으로써 입원시설의 변화나 환자 권리옹호의 동향

Table 3. Awareness on Treatment measures

Classification	Category(Frequency)	
	Before 1995	Since 1996
Love, Attention	Love of family(3), Around interest(5)	Love(1), Around interest(8)
Therapeutic approach	Hospitalization(20)	Gastrointestinal inserting/ restraining/ stabilization/ electroconvulsive therapy/ Medication/ Psychodrama(19)
	Psychodrama/ Medication/ meditation/ Medical examination/ Forced eating(5)	Hospitalization/ Outpatient treatment (14) Exercise/ Art therapy/ Tea meeting(7)
	Protect/ Rest(3)	Self-awareness(4) Patient's human rights review(1)
Social measures	Recommended hospitalization in the town meeting(2)	Legal action(8)
	Report of the escape patient(1) News report(1) Sending in an orphanage children(1)	Case/ Budgets(2) News report(2) Recommended hospitalization(1)
Etc	Exorcism(1) Left to die(1)	Voluntary yoga program use(4)

Table 4. Perception of Families and Friends

Classification	Category(Frequency)	
	Before 1995	After 1996
pain	Disease outbreak/ Suicide(7)	Desire to give up/ Long-term care(17)
	Constantly nervous/ Difficulty in hygiene management(5)	Constantly nervous/ Difficulty in hygiene management(17)
Burden	Long-term care/ Need for suicide(3)	Family conflict(5)
	Load(10)	Load(7)
	Economic burden(4)	Shame(7)
	Sense of responsibility(5) Shame(1)	Self-condemnation/ Have deep resentment(3) Economic burden(1)
Expectations for Recovery	Pray for recovery(1)	Trying to change the patient's mind/ Aggressive treatment needs(11) Pray for recovery(1)
Etc	Can be used as a money issue(2)	Incomprehension(6)
	If it is strange, it may be hit or tied(2) Incomprehension(1)	Revenge for the cause provider(2) Disability benefit(2)

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병원에서 삭막하고 어두운 배경, 강압적인 분위기, 격리되어 있는 환자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가 많은 점은 Demere와 Nikita[25]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아직도 환자의 권리와 복지를 소홀히 하는 기관들에 대한 고발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스토리가 없이 단순히 장면만 보여준다면 조현병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저항을 키울 수 있다. 여하간 시대가 바뀔에 따라 입원 치료 후 시설 입소 등 지속적인 관리를 나타내는 국가정책이 그려지고 있었다.

또한 환자에게 끊임없이 신경을 쓰는 모습은 1996년 이후 영화에서 더 자주 묘사되는데 비해 경제적 부담에 대한 표현은 1995년 이전 영화에 더 자주 등장함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개선되어 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조현병 환자에 대한 실제적인 대인 지각이나 감정 지각이 영화 속에서 유사하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영화 매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일반인 뿐 아니라 의료인들의 태도나 정신병원에 대한 인식 또한 드러나기에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파악해볼 수 있었다. 이는 조현병 환자나 그 가족, 의사, 간호사 등 관련자들의 민감성을 자극하고, 일반인들에게도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교육을 계획하거나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조현병 환자의 등장이나 증상의 특이성을 흥미거리 혹은 피상적으로 다루었다면, 앞으로는 환자의 고통과 투병의 경과나 이와 관련된 의미 등을 좀 더 진솔하게 다루고 더불어 가족의 부담과 극복,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회적 지원 등을 묘사하는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먼저, 영상을 구하지 못해 보지 못한 영화가 있었다는 점, 조현병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나열 등은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다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다수의 전문가를 포함한 관찰자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상매체가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좀 더 실증적인 연구를 해보거나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영화를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 연구를 제안한다.

5. 결론

이 연구는 조현병 환자가 등장하는 영화로 지난 40년간 한국에서 상영된 48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조현병 환자에 대한 대인지각, 감정지각, 가족과 친지의 인식, 그리고 치료대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 조현병 환자는 여전히 폭력적이고 위험하며, 특히 가족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혼자 살아가기 힘들어 돌봐주어야 하는 존재로도 인식하고 있어 양가적인 면을 보였다. 가족지지는 조현병 환자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그들을 지지하고 돌보는 것은 가족의 중요한 역할이다[32].

최근 영화에 이르면서 환자가 겪는 내면의 고통이나 행동 특성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다양한 치료 장면과 함께 치료를 향한 의료진 및 가족이나 환자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조현병이나 조현병 환자의 행동 특성을 단편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고통이나 극복을 향한 삶의 의미 등을 성찰하기에는 부족함이 컸다.

요약컨대 영화를 통해 살펴 본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 인식은 실제와 유사하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에게 부담과 고통을 주는 존재로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최근에 이를수록 치료 환경의 변화, 환자의 권리 옹호, 자발적 선택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영화의 주제 메시지를 사회현상과 비교하거나 영화를 통해 특정 이미지를 고찰한다든지 관객의 정치적, 사회적 태도의 점화를 살펴보는 등 영화를 도구삼아 사회 인식과의 연결점을 찾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33-35].

이런 점에서 영화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을 위한 도구로 영화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한 추후 연구들이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S. J. Gong. (1997).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lay person toward the mentally il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6(2), 265-277.
- [2] D. W. Hahn & M. K. Rhe. (2003). Changes in social representations about mental disorders: A comparison of 1976 and 1995 year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8(1), 191-206.
- [3] J. S. Yoon & H. S. Tak. (2014). *Management of mental illness and prevention of crime*. Korea Institute of Criminal Policy, Supreme Prosecutors' Office.
- [4] B. H. Lee. (2010). *Social representation of a person with mental disorder appearing in newspaper article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Ph.D.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5] H. K. Chang & A. Y. Woo. (2011). Discourse on mental disorders created by TV documentary: completion of distinction. *Korea Social Welfare Research Association*, 42(1), 179-217.
DOI : 10.16999/kasws.2011.42.1.179
- [6] H. S. Kim. (2007). Developing a Psychosocial Rehabilitation Model for Persons with Chronic Mental Ill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4), 490-500.
- [7]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09). *National report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the mentally disabled*. Seoul :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8] K. H. Kim. (2011). *Development of targeted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to eliminate prejudice and recognition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Korea Health Promotion Development Institute, Seoul Womans College Nursing Industry & Academy Collaboration Office.
- [9] C. S. Shin & S. W. Kim. (2015). Mental Health Reform through the 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in Australia and Convergence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 gence*, 13(6), 341-350.
DOI : 10.14400/JDC.2015.13.6.341
- [10] Y. H. Cho et al. (2014). *A study on the integrated supporting system for the mentally disable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Disability Development Institute.
- [11] Y. Kim, M. S. Lee, S. Y. Lee, S. K. Kang, Y. S. Kwak & K. H. Kim. (2010). *Develop ment of national mental health plan 2011-20 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Health Promotion Support Team.
- [12] S. Y. Lee. (2012). Direction and tasks of mental health promotion policy in accordance with social condi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87(5), 68-70.
- [1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3rd National health promotion comprehensive plan: 2011-2020*. Government Public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92-317.
- [1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Guidance for mental health business in 2017*. Guidance for mental health busines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90-391.
- [15]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National Mental Health and Welfare commission*. 2015 National mental health statistics-pilot study,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 [16] M. R. Ryu, H. J. Bae, S. J. Sub, I. Y. Lee & J. J. Lee. (2007). *Democratic union of media citizens. reading imag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mass media: 2007 media monitor report*. 「Disabled First」 Practice Movement Bureau Secretariat, p. 155.
- [17] J. H. Seo, S. H. Lee, D. K. Shin, O. Y. Kwon & K. Y. H. Park. (2012). *Survey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of the mentally disable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18] Kimmel Joachim & Cress Ulrik. (2013). The effects of TV and film exposure on knowledge about and attitudes toward mental disorder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1(8), 931-943.
DOI : 10.1002/jcop.21581
- [19] J. E. Kim & J. H. Suh(2015). The social representation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 appeared in Korean film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6(2), 177-204.
DOI : 10.16999/kasws.2015.46.2.177
- [20] Y. S. Choun. (2014). *The unification story in the Movie*. Education Development Division, Unification Education Center, Seoul, 6-7.
- [21] J. H. Byun. (2003). *Study on regulation of the films and its changes in Korea*. Ph.D. dis 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22] S. W. Kim, J. S. Yun, M. S. Lee & H. Y. Lee(2000). The Analysis of Newspaper-Artic les on Psychosis. *Journal of Korean Neuro psychiatric Association*, 39(5), 838-848.
- [23] D. W. Seo. (2007). Mental health policy and law in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ealth and Welfare Forum*, 123, 42-56.

- [24] S. Elo & H. Kyngäs. (2008).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2(1), 107-115.
DOI : 10.1177/2158244014522633
- [25] Demere & Nikita. (2016). Exaggerations and stereotypes of schizophrenia in contemporary films. *Elon Journal of Undergraduate Research in Communications*, 7(1), 226-33.
- [26] Owen & R. Patricia. (2012). Portrayals of schizophrenia by entertainment media: a content analysis of contemporary movies. *Psychiatric Services*, 63(7), 655-659.
DOI : 10.1176/appi.ps.201100371
- [27] J. S. Kim & Y. M. Yoon. (2011). Profanity in Korean film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5(5), 81-104.
- [28] M. K. Kim, L. Y. Ki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Association for the Rehabilitation of Korean Society. (2008). *A Survey on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Mentally Disabled and Family Members*. Seoul :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352-401.
- [29] O. J. Lee & Y. S. Choi. (2007). Family Experiences of Living with Chronic Schizophrenic Patients - Application of Pars e's Human Becoming Research Methodolog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1), 26-34.
- [30] TV daily. (2017). *The 20th anniversary of the opening of 'Shine' in Korea*.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951570201241591008>.
- [31] Star Seoul TV News. (2016). *EBS world renown, 'Beautiful Mind' From the Schizophrenia to the Nobel Prize 'Impression of human victory'.*
<http://www.news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41403>
- [32] J. S. Kim. (2018). Schizophrenic Patients Impact on Quality Lif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1), 53-58.
DOI : 10.22156/CS4SMB.2018.8.1.053
- [33] T. H. Lee. (2017). A study of expressing social agenda in feature film (Focusing on the Coen brother's film "A big lebowski (199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6), 399-406.
DOI : 10.14400/JDC.2017.15.6.399
- [34] I. S. Lee, J. H. Kim, Y. J. Kim. (2017). Convergence and Integration Review of Fire fighter Image through Disaster Movi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2), 91-97.

- [35] D. C. Park. (2015). Effect of movie <cart> on viewer's political and social recogni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1), 365-371.
DOI : 10.14400/JDC.2015.13.11.365

홍 경 영(Hong, Kyung Young) [정회원]



- 2007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학사)
- 2017년 2월 : 을지대학교 임상간호 대학원(간호학 석사)
- 2017년 9월 ~ 현재 :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 관심분야 : 정신간호, 대중문화
- E-Mail : sarah_love@naver.com

임 숙 빈(Im, Sook Bin) [정회원]



- 1979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학사)
- 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
-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

- 1992년 3월 ~ 현재 :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커뮤니케이션, 스트레스관리
- E-Mail : imsb@eulji.ac.kr